

스페인 내전의 국제사적 고찰 — 간섭국들의 지원 결정 시점과 의도를 중심으로 —

최 해 성
단독/서울대학교

Choe, Hae-Sung(2006), *La Guerra Civil española desde una perspectiva histórica internacional: En torno al momento inicial y los motivos de la intervención extranjera*, *Revista Iberoamericana*, 17, pp. 115-140.

La Guerra Civil española, pasados setenta años desde su estallido, sigue siendo cuestión de debate tanto en el ámbito político social interior como en el político internacional. En este último, existía una conformidad relativamente amplia acerca de que la guerra en su origen fue esencialmente un conflicto intraespañol, pero cuya duración, transcurso y resultado fue determinado por la internacionalización del conflicto. Sin embargo, desde finales del siglo pasado, las nuevas aportaciones de la tendencia revisionista desafiaron dicha conformidad resucitando la vieja polémica de que no fue la internacionalización de la guerra sino los factores internos los que realmente determinaron el resultado de la guerra.

La presente tesis tiene como objetivo principal intentar examinar el estado actual de la cuestión sobre la intervención extranjera y obtener respuestas objetivas y lógicas basándose en el análisis de documentación nueva y en las últimas investigaciones sobre el particular. Sobre todo, el enfoque se centra en el momento, los motivos y el alcance de la intervención extranjera, que habían sido y siguen siendo puntos más controvertidos. Aún no es fácil extraer una conclusión definitiva de cada punto, sin embargo, el análisis nos permite confirmar que la internacionalización de la guerra ha sido un cristal de la interacción entre la petición de auxilio de ambos bandos beligerantes (de los nacionalistas y de los republicanos) hacia fuera, y los motivos geoestratégicos e ideológicos de los países intervencionistas. No se puede negar que la rápida intervención de los países fascistas en la primera fase de la guerra ha sido el factor determinante para cambiar el transcurso de la guerra y que, a su vez, la Guerra Civil española repercutió en la sociedad internacional, influyendo en la formación del escenario europeo, vinculado directamente con el estallido de la Segunda Guerra Mundial.

Key Words: Guerra Civil española/ internacionalización de la Guerra Civil/ intervencionismo, 스페인 내전/ 내전의 국제전화/ 간섭주의

I. 서론

올해로 스페인 내전이 발발한 지 꼭 70년이 되었다.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연구들이 쌓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내전은 여전히 고갈되지 않는 생명력으로 연구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의문을 제기하고, 예술 활동 등에 영감을 주고 있다.¹⁾ 세기가 바뀌어도 내전과 프랑코 독재의 피해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굴되면서 지역적 차원에서 반인권적 탄압의 전모를 밝히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학계에서 어느 정도 합의되었던 시각 -쿠데타와 내전으로 인한 스페인 민주주의의 중단이라는- 에 도전하는 해석들이 ‘수정주의적’²⁾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식어가던 논쟁에 불을 지폈다. 특히 이 논쟁은 복잡한 스페인 사회의 이념적, 지역적, 종교적 갈등과 맞물려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반면, 이렇게 논란이 가시지 않는 스페인 내전의 국내적 측면에 비해 이미 오래 전에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보였던 내전의 국제적 측면에 대해서도 새로운 쟁점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 논쟁은 스페인 내전에 관련된 구소련 문서들이 접근 가능해짐으로써 시작되어 역시 수정주의적 연구자들의 다른 시각이 보태져 추진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대다수의 내전사 연구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인 중심축은 “스페인 내전의 발발은 본질적으로 오랜 기간 누적된 국내적 요인들에서 비롯되었으나, 전쟁의 경과, 향방 그리고 그 결과는 국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적으로 판가름되었다”는 견해이다.³⁾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1936

1) 10년 전인 1996년, 내전 발발 60주년을 계기로 학술정보문헌연구소(CINDOC)는 스페인 내전에 관한 참고문헌 목록을 발행하였다. 이 목록에 따르면 1975년에서 1995년까지 20년 간 씌어진 연구간행물이 이미 3500편을 넘어섰다. CINDOC(1996), *La Guerra Civil* (2 vols.), *Bibliografías de Historia de España (BIHES)*, núm. 7, Madrid, CINDOC.

2) 여기서 수정주의적 ‘적’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이러한 흐름의 연구자들이 스스로를 ‘수정주의적(revisionismo)’에 속한다고 믿는 반면에, 다수의 학자들은 이들을 수정주의를 가장한 ‘신 프랑코주의자(neofranquista)’라고 폄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일고 있는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서는 Xosé-Manoel Núñez(2004), “From National-Catholic Nostalgia to Constitutional Patriotism: Conservative Spanish nationalism since the Early 1990s”, in S. Balfour(ed.), *The Politics of Contemporary Spain*, London, Routledge, 121-145를 참조.

년 7월 17/18일 발생한 쿠데타 그 자체는 근대 이후 군의 정치 개입이 오랜 전통으로 된 스페인에서 그다지 새로운 일은 아니었다.⁴⁾ 하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신속한 반응과 지원이 이 쿠데타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쿠데타의 초기 상황은 반란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못했는데,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대도시와 주요 공업지대가 공화국의 영향력 아래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규군의 절반이 공화국 수호에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페인 국제관계 연구의 권위자인 앙헬 비냐스(Ángel Viñas)의 단언처럼, 스페인 내전은 “외국의 개입과 불개입을 제쳐 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외부적 요인이 “실패한 쿠데타”를 장기적 무력충돌로 변화시켰고, “스페인의 미래와 승리할 정권”을 결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⁵⁾ 따라서 당시 국제관계에서 중심부에 해당되지 못했던 스페인에, 그것도 순전히 국내적인 문제로 일어난 쿠데타에, 유럽의 강대국들이 모두 관여하게 되어 내전의 결과를 결정지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그 동안 늘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수정주의적 연구가들의 주장과 같이 그와는 정반대의 시각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듯하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
- 3) Walther L. Bernecker(1996), *Guerra en España 1936-1939*, Madrid, Síntesis, 45; Enrique Moradiellos(2001), *El refugio de Europa. Las dimensiones internacionales de la Guerra Civil española*, Barcelona, Ediciones Península, 19-20; G. G. Queipo de Llano(2000), “El impacto internacional de la Guerra Civil Española”, en J. Tusell, J. Avilés y R. Pardo(eds.), *La política exterior de España en el siglo XX*, Madrid, Biblioteca Nueva, 222-223.
- 4) 군의 정치적 개입은 스페인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19세기 이래 스페인 근현대사에서 군의 정치적 개입을 의미하는 ‘선언(Pronunciamiento)’이나 쿠데타 시도는 50회가 넘는다. 19세기에는 전제 왕정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적 세력으로서의 군의 긍정적 역할도 존재했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극우적 이념에 경도되어 무능하고 혼란스럽게 보이는 시민정치로부터 스페인을 구한다는 사명과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게 되었다. 스페인 근현대사에서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하여는 고전 연구인 Stanley G. Payne(1967), *Politics and the Military in Modern Spain*, Stanford 외에 C. Seco Serrano(1984), *Militarismo y civilismo en la España contemporánea*, Madrid, Instituto de Estudios Económicos; Joaquim Lleixà(1986), *Cien años de militarismo en España*, Barcelona, Editorial Anagrama; Carolyn P. Bond(2000), “The military and politics”, in J. Alvarez Junco and A. Shubert, *Spanish History since 1808*, London, Arnold, 64-78 등을 참조.
- 5) Ángel Viñas(1996), “Intervención y no intervención extranjera”, en E. Malefakis(dir.), *La guerra de España (1936-1939)*, Madrid, Taurus, 265.

“양 교전 측에 거의 동등한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적 개입은 내전의 결과를 좌우할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고, 당시에 수립된 ‘불간섭 위원회’에 의해 스페인 내전은 확실하게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유럽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제적 개입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기존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반론이다.⁶⁾

이 글은 새로운 사료와 연구들에 의거하여 국제사적인 관점에서 스페인 내전을 조망하고, 위에서 제기된 질문들, 나아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스페인 내전의 연구가 쉽게 빠져들었던 오류들-예를 들면 이념에 편향된 프로파간다적 기준이나 도덕적 이분법 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엄밀한 사실의 분석에서 출발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조망을 가로막는 결정론적 해석을 지양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II. 간섭국들의 대립구조: 반볼셰비즘 vs 반파시즘

1936년 7월 17일 스페인령 모로코에서 시작된 군사반란은 이튿날부터 스페인 전역으로 퍼져 나갔으나, 쿠데타를 주도한 수뇌부들의 의도와는 달리 전국을 일시에 장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스페인의 정치지형도가 그대로 군사지형도로 변모되어 전 국토는 공화진영과 반란군 장악진영으로 크게 양분되었고⁷⁾ 그 어느 쪽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6) 이러한 시각의 작품으로는, 과거 공산주의 과격단체 ‘Grapo’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Pio Moa(2004)의 *Los mitos de la Guerra Civil*을 비롯해 Ricardo De la Cierva(2000), *El 18 de julio no fue un golpe militar fascista*와 *Historia esencial de la Guerra Civil*, 그리고 Cesar Vidal(2006), *La guerra que ganó Franco*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프랑코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Stanley Payne의 시각이다. 최근작 *The Spanish Civil War: the Soviet Union, and Communism*(2004)에서 그는 20세기의 신화들이 대부분 파괴된데 비해 스페인 제2공화국의 신화는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었음을 비판하고, 내전 발발의 근본 원인을 혁명적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290-291) 그런 의미에서 그는 Pio Moa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7) 쿠데타가 실패한 지역은 대개 공화국의 개혁을 지지하고 진보적 정치 프로그램을 요구했던

물리력을 보유하지 못해 결국 자신들의 주의 주장과 가까운 유럽 국가들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스페인 내전이 신속하게 국제전으로 전환하게 된 데에는 스페인 스스로의 외부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페인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당시 스페인 내부에 형성된 이념의 대립구도와 유럽 전체의 그것과의 유사성 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타국을 향한 구원요청은 공화정부측과 반란군 측에서 거의 동시에 발신되었으나 유럽 강대국들의 반응은 스페인 내전에 대한 개입과 불개입, 크게 둘로 나뉘어졌다. 개입을 결정한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 최고지도자가 절대적 권력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정권들이었다. 따라서 개입의 결정은 이들 국가 수뇌의 최종 판단에 따라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반면 불간섭을 추진한 나라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회 민주제가 시행되고 있어 최종적인 정책 결정에 있어 앞의 국가들과 같은 빠른 속도와 기밀 유지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제 주요 강대국들이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으며, 어느 정도까지 스페인 내전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스페인 내전의 국제적 환경을 검토함에 있어 관련국들의 입장을 모두 다루는 것은 방대한 양이므로 이 글에서는 양 교전 측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했던 주요 국가들에 한해서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독일의 지원과 프랑코의 부상(浮上)

나치 독일의 스페인 반란군에 대한 지원을 둘러싸고 그 동안 많은 논

곳들이다.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진보정당들이 활약하던 대도시와 공업지대에서는 노동자 민병대가 경찰병력과 합세하여 군사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 반면, 반란군이 장악한 지역은 주로 전통적이며 보수 성향이 강한 농촌지역이다. 하지만, 어느 지역도 구성원 전원이 완벽하게 동일한 정치적 성향을 소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 지역 내에서 정치적 성향이 달라 억압되거나 희생되었던 소수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쟁이 있어 왔는데, 그 중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개입의 시점’과 그 지원을 결정한 히틀러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였다. 공산주의나 아나키즘계열의 연구가들은 쿠데타 모의 과정에서부터 나치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록 히틀러의 내밀한 기록에는, 북아프리카에서의 프랑스 식민지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는 스페인이 반프랑스 동맹국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 다뤄지기도 하지만⁸⁾ 실제로 내전 발발 전까지 그가 스페인에 기울였던 관심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⁹⁾ 또한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스페인-독일 간의 경제 관계를 분석한 최근 연구도 반란 계획단계에서 독일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¹⁰⁾ 나아가 쿠데타를 주도했던 산후르호(Sanjurjo) 장군이나 대표적 우익 정치지도자 힐 로블레스(Gil Robles)가 1930년대 초반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에도 쿠데타 지원에 대해 아무런 협약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¹¹⁾ 더욱이,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외교라인을 통해 전달된 프랑코의 첫 번째 지원 요청이 독일 외무성으로부터 거부당하였는데¹²⁾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 군사반란의 모의단계에서부터 독일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것이 스페인 반공화정 인사들과 독일의 접촉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미 스페인에는 독일외교관 외에도 나치당원, 독일군정보부(Abwehr), 비밀경찰(Gestapo)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활약하고 있었는데, 반란군 지휘자들 중 일부는 군정보부와 연결되고, 프랑코는 스페인령 모로코에 있는 나치당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평소의 유대와 이념적 교감이 쿠데타 실패 직후 주저 없이 독일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프

8) Adolf Hitler(1961), *Hitler's Secret Book*, New York, Grovo, 209.

9) Robert H. Whealey(1989), *Hitler and Spain: The Nazi Role in the Spanish Civil War 1936-1939*,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3-5.

10) Ángel Viñas(2001), *Franco, Hitler y el estallido de la Guerra Civil*, Madrid, Alianza Editorial, 113-134.

11) Ibid., 153-167.

12) DGFP(Documents on German Foreign Policy, 1918-1945), Series D, vol. III (Germany and the Spanish Civil War), documents 2, 4.

랑코는 외교 경로에 의한 청원이 실패하자 곧바로 나치당원을 통하여 히틀러와의 직접 접촉을 시도했는데, 이 루트가 주효해서 프랑코의 지위를 수직 상승시키는 결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¹³⁾

쿠데타의 실패 또는 정부의 군사반란 진압 실패로 공화진영과 반란군 진영이 팽팽한 군사적 대치를 이루고 있을 때 시간은 반란군 편이 아니었다. 단순한 숫자상의 군사력은 반란군측이 약간 유리했지만, 경제력에 있어서는 공화정부 통제 하에 남게 된 지역이 월등히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¹⁴⁾. 이런 전세에서 반란군이 승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프랑코가 지휘하는 모로코 주둔 정예부대를 스페인 남부로 이동시켜 신속히 마드리드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중해를 관제하는 해군이 군사 반란에 가담하지 않고 공화국 진영에 잔류하자 지브롤터 해협마저 봉쇄되기에 이른다.¹⁵⁾ 이제 프랑코에게 남은 방법은 아프리카 부대를 본토로 공수하는 길 뿐이었지만, 반란군이 보유한 항공기 수용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신속하게 수송기 및 군수물자 지원을 독일과

13) 쿠데타 준비단계에서 보면 주모자들 중 프랑코의 서열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쿠데타가 성공하면 산후르호 장군이 최고 지도자로 집권하게 되어 있었고, 그 뒤를 몰라 장군과 고데트 장군이 잇게 되어 있었다. 반면, 프랑코는 스페인령 모로코의 책임자로 내정되었을 뿐이었다.(Paul Preston(1994), *Franco, Caudillo de España*, Barcelona, Grijalbo, 173) 그러나 쿠데타 직후 산후르호 장군은 망명지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오는 도중 비행기사고로 사망하고, 몰라(Emilio Mola)나 게이포 데 야노(Queipo de Llano) 등 다른 군 지휘관들은 독자적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한다. 결국 이 두 나라의 프랑코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일약 그를 최고 지도자의 위치로 끌어 올려 주었다고 볼 수 있다. A. Viña and C. C. Seidel(2002), "Franco's request to the Third Reich for military assistance",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11, 207-208; Christian Leitz(2002), "La Alemania nazi y la España franquista, 1936-1945", en S. Balfour y P. Preston(eds.), *España y las grandes potencias en el siglo XX*, Barcelona, Crítica, 99-100.

14) Walther L. Bernecker(1996), 앞의 책, 31-32. 라몬 살라스 라라사발(Ramón Salas Larrazábal)의 통계에 따르면 육군은 반란군이 우세했으나(약 7천여 명) 해군과 공군에서는 공화정부를 지지하는 숫자가 앞섰다(약 5천여 명). 경찰병력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공화정부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군의 지휘체계 상에서 볼 때, 15,000 여명의 중간 계급(장교급) 중에서는 단지 3,500여명만이 공화정부측에 잔류하였으나, 고위 장성급에서는 17명의 장군 중 단지 4명만이 반란에 가담했다. 이 통계는 쿠데타가 준비단계에서 치밀하게 기획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15) 쿠데타 발발 당시 지브롤터해협을 통제하는 해군 내부의 긴박했던 움직임에 대해서는 Anthony Beevor(2005), *La Guerra Civil española*, vol. 1, Barcelona, Crítica, 103-107 참조.

이탈리아에 타진했고, 가장 먼저 히틀러가 이 요청에 응했던 것이다.¹⁶⁾

히틀러는 프랑코가 조심스럽게 제시한 숫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송기(Junker-52) 20대와 전투기(Heinkel-51) 6대 그리고 다양한 전쟁물자들을 보내면서 지원을 개시한다. 그리고 이 제한된 초기의 지원은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는 상당한 규모로 확대되는데, 전쟁 기간 중 통틀어 1만 6천여 명의 독일군이 프랑코군에 가담하였다. 이 병력 수에는 유명한 비행 부대인 ‘콘도르 군단(Legión Cóndor)’을 빼놓을 수 없다.¹⁷⁾ 약 140대의 항공기로 이루어진 이 부대의 활약은 프랑코진영에 제공권의 우위를 가져다주었고, 1937년 바스크 전투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었다. 전쟁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스페인은 독일의 신무기와 군사작전의 실험장으로 변하였는데, 특히 “게르니카”의 비극이 보여주듯, 스페인 사람들은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융단 폭격, 급강하 폭격과 같은 새로운 전투 기술의 첫 희생자로 기록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독일의 2인자이자 공군 총사령관이었던 괴링(Hermann Göring)이 스페인 내전의 개입 동기가 자신의 공군(Luftwaffe)을 실험해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여 한동안 이러한 시각이 힘을 얻기도 했다.¹⁸⁾ 그리고 실제로도 이후의 세계대전에서 군사령관으로 활약할 많은 지휘관들이 스페인 내전을 거쳐 가기도 하였다.¹⁹⁾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가 처음부터 군사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프랑코를 지원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당시 주변 인물들의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스페인의 군사적 충돌이 단기전으로 끝나리라는 예상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우리는 히틀러가 스페인 내전에 개

16) 바이로이트(Bayreuth)에서 열린 오페라 축제에 참석하고 있던 히틀러는 프랑코가 보낸 특사들과 면담한 후 곧바로 지원을 결정한다. 20세기 전반기 중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내전으로 확대될 이 반란군에 대한 지원이 아이러니하게도 바그너 음악을 탄 낭만적인 작전명 ‘Feuerzauber(Fuego mágico)’로 전개된다. 바이로이트에서 프랑코 특사와 히틀러의 면담 과정에 대해서는 Viñas(2001), 앞의 책, 368-384 참조.

17) 콘도르 군단에 대해서는 Robert H. Whealey(1989), 앞의 책, 49-55와 101-104 참조.

18) Christian Leitz(2002), 앞의 글, 101-102.

19) 독일이 스페인 내전을 군사적 실험 장소로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Robert H. Whealey(1989), 앞의 책, 104-108 참조.

20) Gerhard Weinberg(1970), *The Foreign Policy of Hitler's Germany: Diplomatic*

입하기로 한 결정적인 동기를 지정학적 요인과 이데올로기적 요인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스페인 반란군이 외부 지원 없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교적 정확한 상황인식 아래, 단기간의 은폐된 소규모 원조가 유럽 남부에 동맹국 내지는 적어도 프랑스·소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정권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²¹⁾ 이것은 만약 전략적 요충지이며 지중해 관문인 이베리아 반도에서 프랑스의 동맹국이 없어 진다면 서유럽에 존재하던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정학적 산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데올로기적 요인도 히틀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이데올로기는 다른 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단순한 수사학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실제로 히틀러는 볼셰비즘의 확산을 상당히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²⁾ 스페인 내부에 공산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관측하고 있었지만, 스페인 내전에서 인민전선 정부가 승리하여 소련, 프랑스와 긴밀한 유대를 맺게 되면, 유럽 전체에 인민전선의 확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²³⁾

전쟁이 장기화되자 이러한 초기의 동기들과 함께 다른 목적들이 부상

Revolution in Europe, 1933-1936, Chicago, Chicago Univ. Press, 290; Walther L. Bernecker(1996), 앞의 책, 50.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프랑코의 신속한 승리를 기대하고 히틀러가 지원을 결정하였다는 시각과 반란군 측의 상황이 비판적이어서 오히려 지원을 결정하였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는데(C. Leitz(2002), 앞의 글, 100 미주 13), 우리는 전자의 의견을 따르고자 한다. 쿠데타 발발 직후, 스페인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선박을 스페인에 파견해야 한다는 측근의 의견에 대해, 히틀러는 사고가 날 것을 두려워해 상당히 주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A. Viña and C. C. Seidel(2002), 앞의 글, 205). 따라서 이렇게 신중함을 보인 히틀러가 군사반란의 결과가 비판적이었고 내전이 장기전으로 전환되리라 예측하였다면, 그렇게 신속하게 개입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되었든지, 후에 히틀러 자신이 설명하듯, 프랑코를 지원하여 유럽 강대국들의 관심을 스페인으로 돌려놓고, 그들의 눈을 피해 재무장을 계속한다는 계산도 있었음에 틀림없다.(Hugh Thomas(1976), *La Guerra Civil española*, vol. 1, Barcelona, Mondadori, 387)

21) Moradiellos(2001), 앞의 책, 88.

22) Angel Viñas(2001), 앞의 책, 395-396.

23) 이렇게 '전략적' 고려와 '이데올로기적' 우려가 결합된 것을 데니스 스미스(Denis Smyth)는 '국제 체제의 지이념적(geo-ideological)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Denis Smyth(1984), "Reflex reaction: Germany and the onset of the Spanish Civil War", in Paul Preston(ed.), *Revolution and War in Spain, 1931-1939*, London, Methuen, 251.

하게 되는데,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다. 히틀러는 스페인 반란군에게 지원하는 군수물자의 대가를 스페인 지하자원을 통해 보상 받으려 했다. 특히 프랑코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매장량의 철과 구리는 독일의 재무장에 절대 필요한 원료였다. 독일의 제2차 4개년 경제 계획의 책임자이면서 프랑코군 지원 계획을 직접 지휘했던 괴링은 스페인으로부터의 원료 수입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만성적인 외화 부족에서 오는 원자재 구입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처방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내전 이전에 스페인 철광 생산량의 대부분을 독점하던 영국의 지위를 독일이 차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1937년 프랑코 측과 일련의 협약을 통해 스페인 광산 개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 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확보하고, 끝이어 영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양의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로 올라선다.²⁴⁾ 프랑코 측은 독일이 지나치게 자원을 독점하는데 대해 반감을 갖고 일시적으로 제한을 가해보기도 하지만, 1938년 내전이 중대한 고비에 이르자 더 많은 전쟁물자를 공급 받기 위해 결국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도 일정기간 계속 이어진다.²⁵⁾

2. 무솔리니와 스페인 내전: 지중해 패권주의

히틀러가 프랑코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무렵,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유사한 결정을 내린다. 비록 개입 결정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만 사전에 양 지도자간에 상호 의견교환이나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개입에 대해서도 그동안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는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개입의 결정 시점’과 ‘지원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였다.

무솔리니와 스페인 극우파들과의 관계는 쿠데타 이전으로 거슬러 올

24) 스페인 내전 기간에 독일이 설정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Robert H. Whealey(1989), 앞의 책, 제 4장 “The Development of German Economic Interests”를 참조.

25) Christian Leitz(1996), *Economic Relations between Nazi Germany and Franco's Spain, 1936-1945*, Oxford University Press, 17-52.

라간다. 특히 제 2공화국 시절에 팔랑헤나 왕당파 정치인들의 반공화국 음모에 자금을 후원해 준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²⁶⁾ 따라서, 1936년 7월 쿠데타의 모의 단계에서도 무솔리니의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갖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탈리아 총통은 쿠데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군사반란이 실패하여 프랑코로부터 구원 요청이 들어 왔을 때, 무솔리니의 사위이자 외무장관인 치아노(Ciano)가 반란군에 대한 지원을 적극 표명하는데 대해 정작 무솔리니는 곧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²⁷⁾

그 후 이탈리아가 프랑코군을 지원하기로 정책을 바꾼 배경에는 쿠데타 초기 프랑스 정부가 스페인 공화정부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힌 것에 자극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였다. 프랑스, 영국 그리고 소련에 주재하는 외교관들로부터 이들 강대국이 스페인 내전에 개입할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야 항공기 및 전쟁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²⁸⁾ 무솔리니의 개입 결정은 히틀러의 판단과 유사하게 작은 양의 지원이 반란군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코가 탕헤르의 이탈리아 외교관을 통해 무솔리니에게 전달한 조건도 매력적이었음에 틀림없다. 프랑코는 반란군이 승리하면 스페인에 파시스트성향의 정부를 수립할 의사가 있음을 비치면서, 이탈리아의 원조는 지중해에서 프랑스나 영국에 우위를 점하는 결과로 보상받을 것임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²⁹⁾

26) Ismael Saz(1986), *Mussolini contra la II República. Hostilidad, conspiración, intervención (1931-1936)*, Valencia, Edicions Alfons El Magnànim; Paul Preston(1996), "Mussolini's Spanish adventure: from limited risk to war" in H. Graham and P. Preston(eds.), *The Republic Besieged: Civil War in Spain, 1936-1939*, Edinburgh University Press, 21-51.

27) 프랑코의 요청은 두 번씩이나 거절당하였다. 이렇게 무솔리니가 스페인 반란군 지원에 유보적 자세를 취한 것은 그 전 해에 이디오피아를 침공하여 국제적 여론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Michael Alpert(1998), *Aguas peligrosas. Nueva Historia Internacional de la Guerra Civil España*, Madrid, Akal, 49-50.

28) Paul Preston(1996), 앞의 책, 36-39; Ismael Saz(1986), 앞의 책, 198-201. 또한 John Coverdale(1979), *La intervención fascista en la Guerra Civil española*, Madrid, Alianza, 69-74 참조.

그러나 일단 지원이 시작된 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목표들이 설정되는데 여기에는 지전략적(geo-strategic) 이익과 파시즘의 확산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함께 투영되었다고 보인다. 지전략적 이익은 지중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³⁰⁾ 만약 반란군이 승리하여 스페인에 친이탈리아 정부가 들어서면 서지중해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음은 물론, 발레아레스 제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기 때문이다. 이 섬들은 프랑스와 그의 북아프리카 식민지를 잇는 연결로에 위치해 있어 이탈리아의 제국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적 지점이다.³¹⁾ 반면, 쿠데타가 실패한다면 스페인과 프랑스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고, 대서양으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하기도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³²⁾ 더욱이, 히틀러는 무솔리니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독일은 스페인령 모로코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는 이탈리아의 생존권(生存圈, Lebensraum)이라고 밝혀 왔다. 여기에는 스페인에서 이탈리아와 협력함으로써 외교적 위험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이탈리아의 주도권을 인정하여 그 시선을 독일의 생존권이라 할 수 있는 중부 유럽으로부터 지중해와 아프리카로 돌려놓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³³⁾ 결과적으로 이러한 독·이 양국 간의 영향권 조정도 스페인 내전에 대한 이탈리아의 적극적인 개입을 고무했음에 틀림없다.

한편, 스페인에서 인민전선의 승리는 프랑스, 나아가 서유럽의 혁명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우려도 간과해선 안 될 요소이다. 따라서 무솔리니와 치아노가 내전 기간 내내 스페인에 대한 개입은 이탈리

29) Paul Preston(2002), "Italia y España en la Guerra Civil y en la Guerra Mundial, 1936-1943", en S. Balfour y P. Preston(eds.), 앞의 책, 118-119.

30) 1920년대 중반에 수립된 무솔리니의 세계정책은 지중해를 장악하고 세계의 바다로 진출하여 "새로운 로마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John Gooch(2003), "Fascist Italy", in Robert Boyce and Joseph A. Maiolo(eds.), *The Origins of World War Two: The Debate Continue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34.

31) Coverdale, John(1979), 앞의 책, 40-41, 50-53 참조.

32) 이와 같은 시각은 스페인을 "대서양을 향한 추축의 연장선"이라고 한 치아노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Morten Heiberg(2001), "Mussolini, Franco and the Spanish Civil War: An Afterthought", *Totalitarian Movements and Political Religions*, 2, 61.

33) Bernecker(1996), 앞의 책, 60-61.

아에서 파시즘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³⁴⁾ 사실, 무솔리니는 프리모 데 리베라의 독재 정권 시절부터 스페인내의 파시즘 건설에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제2공화국 성립 이후에는 오직 파시스트 정권만이 스페인의 혼란을 해결하고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쿠데타를 고무하기까지 하였다.³⁵⁾

최근 한 논문은 이러한 무솔리니의 의지는 스페인 내전 중에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이탈리아와 스페인 내전 관계 연구에서 교과서처럼 인식되어 오던 커버데일(John Coverdale)의 시각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커버데일의 고전적인 연구에 따르면 무솔리니는 스페인에서 좌익 혁명의 승리에 대해서는 깊이 우려 하고 있었지만, 프랑코 정권의 파시스트화에는 소극적이었다.³⁶⁾ 그러나 이 논문은 무솔리니의 지침을 받고 프랑코 정권의 파시스트화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보이는 히메네스 까바예로(Ernesto Giménez Caballero)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해석을 전개하고 있다.³⁷⁾ 간단히 말하면, 무솔리니는 프랑코에게 이탈리아 파시즘을 모범 삼아 다양한 정치세력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였고, 프랑코 측에서는 복잡한 정치권의 통제와 새로운 국가 건설의 모델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무솔리니의 제안을 수용하였다는 것이다.³⁸⁾ 이 주장이 맞다면, 프랑코가 팔랑헤를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을 통합하여 하나의 정당을 결성한 것도, 1938년 새 내각에 세라노 수네르(Serrano Súñer) 등 친파시스트 성향의 인물들을 포함시킨 것도, 나아가 스페인의 권리장전이라 선전된 ‘노동법전(Fuero del Trabajo)’의 제정이나 스페인 교육 제도의 파시스트

34) Paul Preston(1996), 앞의 글, 39. Preston은 무솔리니 아내의 증언도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무솔리니는 “스페인에서의 볼셰비즘은 프랑스에서의 볼셰비즘을 의미하고, (...) 나아가 전 유럽의 볼셰비키화라는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35) 스페인의 파시스트 정당 설립과 반 공화국 움직임에 대한 무솔리니의 지원에 대해서는 Ismael Saz(1986), 앞의 책, 제 3장 “Italia y el fascismo español” 참조. 특히 1934년 무솔리니와 스페인의 반공화파 지도자들과의 비밀협정은 특기할 만하다. 이 협정에는 미래의 쿠데타에 대해 무솔리니의 자금과 무기 지원이 약속되어 있다.

36) John Coverdale(1979), 앞의 책, 78-83.

37) Morten Heiberg(2001), 앞의 글, 62-65.

38) Ibid., 64. Heiberg는 1993-4년에 간행된 이탈리아 외무성의 자료들(Documenti Diplomatici Italiani, Series 8, Vol. 8)을 상세히 분석하여 해석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화도 이탈리아의 절대적 영향에 의해서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스페인 내전에 무솔리니가 개입한 목적은 단지 스페인에서 인민전선의 승리를 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와 유사한 파시스트 정권을 수립하려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무솔리니의 이테올로기적 동기는 소극적이라기보다 매우 야심차고 일관성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일과는 달리 이탈리아는 스페인에서 경제적 이익 추구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위성국 건설이라는 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³⁹⁾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이탈리아는 나치독일보다 훨씬 큰 규모의 원조를 프랑코군에게 보낸다. 스페인에 파견된 전투원은 ‘검은 셔츠(camisas negras)’의 파시스트 당원을 포함해 약 8만 여명에 이르고, 지원된 전쟁 물자의 총액도 약 6천에서 8천만 리라에 육박한다. 이것은 약 3천 5백만에서 4천 6백만 리라에 상당하는 독일 지원액의 두 배에 달하는 큰 액수이다. 전투에서의 인명피해도 막대하여 약 4천 명의 사망자와 만 2천 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다.⁴⁰⁾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코군이 승리함으로써 무솔리니의 개입 정책은 중요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스페인이 파시스트 국가로 완전히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반공국가로 거듭나서 1939년에는 반공협정(*el Pacto Anticomintern*)에 가담하게 되며, 유럽에 있어서는 인민전선의 쇠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스페인 내전은 독일로부터 이탈리아를 격리시키기 위한 영국의 친이탈리아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프랑코군 지원을 통해 형성된 이탈리아와 독일의 긴밀한 협력은 결국 그 해 10월 “로마-베를린 추축”의 수립으로 이어지고, 독·이 동맹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¹⁾

39) 이탈리아의 군수물자 지원에 대해 프랑코 측은 철광석 등 원료를 통하여 일부 보상하기도 하였으나, 무솔리니는 전쟁 기간 동안 지불을 유예해주는 등 관대한 자세를 보였다. 내전 종료 후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주재 독일 대사에게, 스페인 내전으로 외환 보유에 문제가 생겨 원자재 수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Ángel Viñas(2001), “The Financing of the Spanish Civil War”, in Paul Preston(ed.), *Revolution and War...*, op. cit., 273-277.

40) John Coverdale(1979), 앞의 책, 393, 418-419; Paul Preston(2002), 앞의 글, 128-129. 독일군 사망자 수 300여 명과 비교하면 그 인적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3. 집단 안보체제의 시금석: 스탈린의 시각

스페인 내전의 국제적 측면 중 최근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소련의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방대한 양의 구소련 기밀문서들이 해제되면서 새로운 사실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그 동안 공화정부가 소련에 지원을 요청한 시점은 프랑스, 영국 등 민주 국가들로부터 전쟁물자를 지원 받는 것이 쉽지 않음을 확인하고 난 이후라고 추정되었으나, 이 국가들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내전 발발 초기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⁴²⁾ 하지만 스탈린이 언제 공화정부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1936년 7월의 쿠데타에 대한 소련과 코민테른의 첫 반응도 새롭게 파악된 부분이다. 비록 9월 말이 되어서야 공화정부에 군수물자를 보내지만, 스페인 공산당(PCE)에 전보로 조언을 보내고 고문관들을 파견한 것은 쿠데타 직후의 일이다.⁴³⁾ 그렇다면, 왜 스탈린은 상당히 이른 시점에 고문관들을 파견하여 스페인 내부를 장악하려 했으면서도, 전쟁물자 지원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주저했던 것일까? 그 해답의 일면을 우리는 초기 코민테른을 통해 스페인에 보낸 전보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현 단계에서 스페인에 소비에트를 만들거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치명적인

41) Enrique Moradiellos(2001), 앞의 책, 100-101. 이 부분도 아직까지 논쟁의 핵심 주제로 남아 있다.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코군을 함께 지원한 것이 “로마-베를린 추축”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으며, 또 이것이 1939년 5월에 수립된 이른바 “강철조약(el Pacto de Acero)”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비록 양국이 스페인 내전에 앞서 이탈리아의 이디오피아 침공과 독일의 라인란트 점령에 대해 상호 양해를 나타내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추축”으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스페인 내전이 제공했다는 시각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2) R. Radosh, M. R. Habeck y G. Sevostianov(eds.)(2002), *España traicionada. Stalin y la Guerra Civil*, Barcelona, Planeta, 54-56. 쿠데타 발발 직후 새롭게 정부의 수반이 된 호세 기랄(José Giral)은 7월 25일 프랑스 주재 소련대사를 통하여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날짜는 아직 프랑스가 불개입을 표명하기 전이다. 이 책의 Documento 10 참조.

43) Ibid., 56-136. 이 책에는 내전 초기 소련 고문관들의 활동을 기록한 문서들이 상당수 번역 소개되고 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그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당이나 조언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필요하다면 군사나 정치, 경제 분야에 개입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잘못”이며, 인민전선을 공고히 다져 반란군에 대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민주적인 공화국을 방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이다.⁴⁴⁾

어느 의미에서 1936년 7, 8월에 스탈린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많지 않았다. 당시 소련 외교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일국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외부의 간섭을 차단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우선 과제였다.⁴⁵⁾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스페인 내전은 그 동안 쌓아 온 서구국가들과의 외교적 접근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스탈린은 표면적으로 스페인 문제에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이면서, 코민테른을 통한 인도적 물자만을 지원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요 대도시에서 쿠데타가 실패하고 지브롤터해협을 공화진영측 해군이 장악하고 있다는 초기의 낙관적인 정보도 인민전선 정부의 위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을 것이다.⁴⁶⁾

하지만 스탈린은 곧 딜레마에 빠진다. 자신은 스페인 내전에 수동적 자세로 있으면서, 프로파간다를 통해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반파시즘 운동을 지도해 가기로 쉽지 않았다.⁴⁷⁾ 이런 모순된 입장에 출구를 마련해 준 것이 프랑스가 제안한 ‘불간섭 조약’이었다. 이 협약은 프랑코에 대한 독일-이탈리아의 원조를 막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인민전선 정부를 방치했다는 비난도 모면할 수 있는, 스탈린에게는 더 없이 좋은 제안이었다.⁴⁸⁾ 그러나, 파시스트 국가들의 지원이 프랑코 진영으로 계속

44) Ibid., 45-49. Documetos 5, 6, 7.

45) 당시의 소련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Jonathan Haslam(1984), *The Soviet Union and the Struggle for Collective Security in Europe, 1933-1939*, London, Macmillan; 같은 저자(1987), “The Soviet Union, the Comintern and the Demise of the Popular Front 1936-39”, in Helen Graham and Paul Preston(eds.), *The Popular Front in Europe*, Basingstoke, Macmillan; E. H. Carr(1986), *La Comintern y la Guerra Civil española*, Madrid, Alianza; Gabriel Gorodetsky(ed.)(1994), *Soviet Foreign Policy, 1917-1991: A Retrospective*, London, Frank Cass; Geoffrey Roberts(1999), “Soviet Foreign Policy and the Spanish Civil War, 1936-1939”, in Christian Leitz y David J. Dunthorn, *Spain in an International Context, 1936-1959*, New York, Berghahn Books, 81-103 참조.

46) Michael Alpert, 앞의 책, 63.

47) Idem.: Gerald Howson, 앞의 책, 122-124.

48) 공간의 제약 상, 이 글에서는 스페인 내전의 주요 개입국들만을 다루기로 하였으므로, ‘불

이어지며 이 조약의 실효성이 의심되자 스탈린은 스페인 내전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경한다. 9월 중순 공화국측에 대한 무기 및 물자 지원을 전담할 일명 ‘X부대(Sección X)’를 소비에트 비밀경찰(NKVD, KGB의 전신) 내에 설치하고 10월부터 군수물자 지원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⁴⁹⁾

다만, 정책은 변했어도 그의 신중함은 변하지 않았다. 지원은 하되, 서방 국가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스페인을 소비에트화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을 정도까지로 선을 그었다. 36년 12월 스탈린이 당시 스페인 대통령 라르고 까바예로(Largo Caballero)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 경향이 확실하게 보인다: “스페인 혁명은, 여러 가지 많은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 혁명이 걸어온 길과는 다른 과정을 거치고 있다. (...) 스페인에서는 의회 활동이 러시아보다 더욱 효과적인 혁명 활동 수단이 될 수 있다.”⁵⁰⁾

이 스탈린의 군사적 지원 결정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전략적 의도에서

간접조약(Acuerdo de No-Intervención)’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피하기로 한다. 이 조약을 처음 제안한 것은 프랑스 블룸정부이다. 같은 인민전선 정부이면서도 국내외의 강한 반대여론에 부딪혀 스페인 정부를 지원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자, 적어도 반란군 측에 대한 파시스트 국가들의 무기 공급만이라도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예상과는 달리 이 조약은 스페인 공화정부에게 더욱 불리한 환경을 초래하였다. 이 조약의 성립으로 스페인 정부로 향하는 전쟁물자들은 강력히 통제된 반면, 조약에 서명하고도 준수할 의지가 없었던 독일과 이탈리아는 계속 프랑코 군에게 물자를 공급하였기 때문이다. 이 조약에 대해서는 M. Tuñón de Lara(1991), “!Todavía la No intervención! (julio-agosto de 1936)”, *Historia Contemporánea*, 5, 171-186; Jean-François Berdah(2002), *La democracia asesinada. La República española y las grandes potencias, 1931-1939*, Barcelona, Crítica, 246-255 등을 참조.

49) 일명 ‘X작전(Operation X)’에 대해서는 Gerald Howson, 앞의 책, 125-126과 제18장 ‘Operation X’ 130-136 참조. 하지만 최근 연구에는 또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스탈린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미 8월 말부터 군사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런던에 불간섭 위원회가 설립되는 것과 같은 시기에 스페인에 부임하는 첫 소련대사는 군사전문가들을 동행하고 있었다. 어쩌면 불간섭 위원회에 참여하여 중립을 표명한 것 자체가 위장 전술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자료들이 개방되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 W. Davies et al.(eds.)(2003), *The Stalin-Kaganovich Correspondence, 1931-1936*, New Haven, Yale Univ. Press 참조.

50) K. McDermott and J. Agnew(1996), *The Comintern: A History of International Communism from Lenin to Stalin*, London, Macmillan, 1996, 140. 이 편지의 전체 내용은 E. H. Carr(1986), 앞의 책, 111-112 참조.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파시스트 국가들의 위협에 대한 방위로 영국, 프랑스 등과 집단안전보장(Seguridad colectiva)을 추구했던 소련에게 스페인 내전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었다. 히틀러, 무솔리니의 반란군 지원이 국제적인 반파시스트 여론을 조성한 가운데, 스페인에서 소련이 이들과 대항한다면 영국과 프랑스도 스페인 공화정부를 도울 수밖에 없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 국가들이 파시즘의 팽창 위협에 맞서 소련과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에 틀림없었다. 게다가, 반란군이 승리하여 스페인에 친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서면, 새로운 동맹국 프랑스는 삼면이 적대국에게 둘러싸이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판단 속에서, 스탈린은 프랑스-영국의 지원 가능성에 기대를 걸며, 스페인 공화정부가 프랑코군의 진격에 저항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중 하나는 직접적인 전쟁물자의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코민테른을 통한 국제여단의 구성이었다.⁵¹⁾

1936년 10월부터 거의 전쟁 종료 직전까지 계속된 소련의 군사적 지원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전투기, 탱크, 중화기 등에서 기관총, 소총에 이르기까지 각종 무기는 물론이고, 공화정부가 수입한 석유의 대부분도 소련에서 공급되었다.⁵²⁾ 그와 동시에 2천 명 이상의 군사전문가, 기술자 등이 파견되어 스페인 공화정부의 정치, 군사 조직에도 깊이 간여한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와는 달리 전쟁에 직접 투입될 군사들은 파견하지 않았다. 이 전투병력 지원은 코민테른 주도로 이루어져,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최소 삼만 오천 명 이상의 의용군이 국제여단(Las Brigadas Internacionales)으로 참전하였다.⁵³⁾ 이들의 전투 투입은 1936년

51) Enrique Moradiellos(2001), 앞의 책, 110-112; Helen Graham(2002), *The Spanish Republic at War, 1936-1939*,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75.

52) 소련의 군수물자 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erald Howson(1998), 앞의 책, 278-303 (부록 III) 참조.

53) 연구자에 따라 다른 통계가 제시되고 있으나, 가장 작은 숫자가 삼만 오천이다. Walther L. Bernecker(1996), 앞의 책, 90. 국제 여단은 전 세계에서 모인 의용군으로 이루어졌지만 유럽 출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적 망명자들이었는데,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헝가리, 핀란드 등 권위주의 정권 하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모여 왔다. 이러한 유럽적 '디아스포라'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국제 여단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Helen Graham(2005), *The Spanish Civil*

10월에 처음 이루어져, 위기에 처한 수도 마드리드의 방어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938년 9월 철수할 때까지 거의 모든 주요 전투에 참전하여 공화국의 저항력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모범을 보였다.⁵⁴⁾ 이 국제 여단의 또 다른 특징은 세계전쟁사에 있어 가장 많은 지식인, 특히 작가들이 지원병으로 참여한 부대이고, 그 활약상이 이들의 자서전적 작품이나 문학 작품을 통해 선명하게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⁵⁵⁾

그 밖에 소련의 개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쟁점 중의 하나가 내전 후 프랑코 측에서 제기하게 된 이른바 “모스크바의 금” 문제이다. 소련은 비록 스페인에서 독일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공화정부 지원 비용의 대부분을 모스크바에 기탁된 스페인 중앙은행의 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마드리드 정부가 모스크바로 중앙은행 금 보유량의 약 4분의 3(약 510톤, 당시 가치로 약 5억 달러)을 이송한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 먼저, 서구 불간섭 국가들의 통제로 전쟁물자 구입을 위한 현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공화정부로서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국내에 계속 보관할 경우 반란군의 표적이 될 위험이 있었고, 서구 국가들의 은행에 기탁할 경우 언제 그것을 동결시킬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⁵⁶⁾ 따라서 당시 공화정부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편 스페인 내전의 무기 연구에 정통한 호슨(Gerald Howson)은 소련이 스페인 공화정부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올렸고, 더욱이 지원된 무기의 상당량은 매우 구식이었다고 지적한다.⁵⁷⁾

War: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42-43.

54) 국제여단에 대한 상세한 연구로는 Santiago Álvarez(1996), *Historia política y militar de las Brigadas Internacionales*, Madrid, Compañía Literaria; K. Bradley and M. Chappell(1994), *International Brigades in Spain, 1936-1939*, London, Osprey 참조.

55) 문학, 예술 작품의 창작 원천으로서의 전쟁에 대해서는 Alun Kenwood(1993), *The Spanish Civil War: A Cultural and Historical Reader*, Oxford, Berg; Andrés Trapiello(2002), *Las armas y las letras: literatura y Guerra Civil (1936-1939)*, Barcelona, Península 참조.

56) Helen Graham(2002), 앞의 책, 150-151; Enrique Moradiellos(2001), 앞의 책, 115-116.

57) Gerald Howson(1998), 앞의 책, 제 19장과 20장.

그렇지만 만약 소련의 무기지원이 없었다면 스페인 공화정부는 더욱 이른 시기에 프랑코군에게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소련이 1936년 연간 전투기 생산량의 50%를 스페인으로 보내 공화정부를 지원했던 것도 사실이다.⁵⁸⁾ 그러므로 공화주의자들이 중앙은행의 금을 탈취해 스탈린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건네주었다는 프랑코진영의 주장은 근거가 취약한 선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⁹⁾

Ⅲ. 결론

1990년대 후반 이후 스페인 내전의 국제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스페인 내전에 간섭했던 국가들의 주요 문서가 기밀 해제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거나 그 동안 간접 자료를 통해 추정적으로 수립된 가설들이 수정·재구성되고 있다. 물론 아직도 한계는 있다. 구소련의 문서들이 더 많이 개방되고 특히 전쟁 당사자인 스페인의 국방 관련 문서, 프랑코와 관련된 문서들이 공개되어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공개된 문서와 그에 대한 새로운 연구도 질적,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먼저 국제적인 지원이 스페인 내전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 일까. 수정주의적 학자들의 주장처럼 전쟁의 전 기간을 통해서 볼 때 양교전측에 전달된 무기 및 군수물자의 전체 규모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공화정부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오히려 공화진영 내부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른바 ‘전쟁 속의 전쟁’이라 불려지는 공화진영 내부의 심한 갈등이 반란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방해한 측면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58) Helen Graham(2002), 앞의 책, 153.

59) ‘모스크바의 금’에 대해서는 Ángel Viña(1979), *El oro de Moscú. Alfa y omega de un mito franquista*, Barcelona, Grijalbo를 참조.

하지만 논의의 초점을 보다 개별적인 사안에 맞추어 보면, 양 교전측에 대한 외부의 지원에 있어 중요한 질적 차이점이 발견된다. 군사반란 직후, 실패로 끝났을 수도 있었던 쿠데타가 치열한 내전으로 비화된 것은 프랑코 측에 대한 독일과 이탈리아의 신속한 지원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더욱이 공화진영에 대한 전쟁물자 지원이 ‘불간섭조약’에 의해 통제된 상황에서, 프랑코 측에 일방적으로 전달된 무력지원은 전쟁 발발 당시 형성되었던 군사적 균형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또한 전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군력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⁶⁰⁾ 결국 레이몽 카의 정확한 지적처럼, 내전의 초기 국면을 결정지을 요인은 군사를 모으는 것보다 무기를 확보하는 일이었고, 우리가 앞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독일과 이탈리아의 프랑코군에 대한 지원이 보다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쿠데타 초기 이들의 신속한 지원이 모로코 주둔정에 병력의 본토 이동을 가능케 했고, 프랑코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정부 수립이 실현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군사적, 재정적, 외교적 지원이 없었다면, 프랑코군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승리로 전쟁을 종료하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스페인 내전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 주로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지정학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전쟁의 전체 기간을 통해서는 경제적, 군사적 요인도 중요한 목적으로 대두되지만 지원을 결정할 시기에는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93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는 실제로 좌익 혁명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소비에트 러시아는 파시스트 국가들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럽 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스페인 내부의 이념적 갈등은 높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것이 결국 내전을 신속한 국제전으로 증폭시

60) 한 통계에 따르면 공화진영은 전쟁 기간 동안 950-1060 대의 전투기(이 중 약 700대는 소련의 지원)를 보유했던 반면, 프랑코 측은 1429-1539 대의 전투기(이 중 약 1400대는 독일, 이탈리아의 지원)를 확보하고 있었다.(Gerald Howson(1990), *Aircraft of the Spanish Civil War*. London, Putnam, 303-305; Robert W. Whealey(1989), 앞의 책, 103). 특히 스페인에 주재하던 한 영국 무관의 지적처럼 공화진영의 무기는 양적인 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그 단적인 예로, 소총의 경우 약 40여 가지의 다른 종류들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었다.

키는 동인이 되었다.

한편, 이베리아 반도의 지정학적 의미도 스페인 내전이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 강대국들의 입장에서 볼 때, 횡으로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관문이 되고, 종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들과 그들의 아프리카 식민지를 잇는 교량적 위치의 스페인에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극히 불편한 일이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프랑코군에 대한 지원 결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내전 초기 소규모의 신속한 지원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스페인에 수립된다면 그것은 곧 커다란 전략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이다.

끝으로, 스페인 내전은 제2차 세계대전과 어떤 관계 설정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수정주의적 학자들이 주장하듯, 불간섭 조약의 부분적인 성공으로 스페인 내전의 유럽 확산은 저지될 수 있었고, 내전 종료 후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같은 별개의 원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으므로 스페인 내전을 그 서막 또는 전초전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하지만 스페인 내전을 통해 조성된 국제 환경이 제2차 세계대전에 큰 영향을 미쳤음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먼저, ‘로마-베를린 추축(Eje Roma-Berlín)’으로 대변되는 파시스트 동맹의 성립이다.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서로의 이념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입장 차이 등에서 나오는 불신으로 인해 긴밀한 동맹관계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스페인 내전에서의 협력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서로의 이해 범위를 조율하면서 강력한 동맹 세력을 구축한다. 둘째, 소련에게 있어 스페인 내전은 서구 민주 국가들과 집단안보체제를 결성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측정해 보는 척도가 되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불간섭조약’에 집착하면서, 집단안보체제가 불확실해지자 고립주의적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독-소 불가침조약을 맺게 되는 한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셋째,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유럽 국가들이 스페인 내전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결국 스페인의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되고, 파시스트 국가들의 세력 확대와 민주국가들의 동맹

악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스페인 내전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다는 해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국제관계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페인 내전을 유럽의 맥락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다루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그것을 유럽의 컨텍스트 안에서 다룰 때 그 의미가 선명하게 나타남을 본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스페인 내전의 국제사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 내전의 국제사적 측면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시각에는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고 파시스트 국가의 지원을 받아 수립된 프랑코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은폐하려는 프로파간다적 목적이 숨어있었음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lpert, Michael(1998), *Aguas peligrosas. Nueva Historia Internacional de la Guerra Civil España*, Madrid, Akal.
- Álvarez, Santiago(1996), *Historia política y militar de las Brigadas Internacionales*, Madrid, Compañía Literaria.
- Beevor, Anthony(2005), *La Guerra Civil española*, Barcelona, Crítica.
- Berdah, Jean-François(2002), *La democracia asesinada. La República española y las grandes potencias, 1931-1939*, Barcelona, Crítica.
- Bernecker, Walther L.(1996), *Guerra en España 1936-1939*, Madrid, Síntesis.
- Bond, Carolyn P.(2000), "The military and politics", in Alvarez Junco, J. & Shubert, A., *Spanish History since 1808*, London, Arnold, 64-78.
- Carr, E. H.(1986), *La Comintern y la Guerra Civil española*, Madrid, Alianza.
- CINDOC(1996), *La Guerra Civil (2 vols.)*, *Bibliografías de Historia de España (BIHES)*, núm. 7, Madrid, CINDOC.
- Coverdale, John(1979), *La intervención fascista en la Guerra Civil española*, Madrid, Alianza.
- DGFP(Documents on German Foreign Policy, 1918-1945), Series D, vol. III (Germany and the Spanish Civil War).
- Haslam, Jonathan(1984), *The Soviet Union and the Struggle for Collective Security in Europe, 1933-1939*, London, Macmillan.
- Hitler, Adolf(1961), *Hitler's Secret Book*, New York, Grovo.
- Gooch, John(2003), "Fascist Italy", in Boyce, R. & Maiolo, J. A.(eds.), *The Origins of World War Two: The Debate Continue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Graham, Helen(2002), *The Spanish Republic at War, 1936-1939*, Cambridge Univ. Press.
- _____(2005), *The Spanish Civil War: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 Press.
- Kenwood, Alun(1993), *The Spanish Civil War: A Cultural and Historical Reader*, Oxford, Berg.
- Leitz, Christian(1996), *Economic Relations between Nazi Germany and Franco's Spain, 1936-1945*, Oxford Univ. Press.
- _____(2002), "La Alemania nazi y la España franquista, 1936-1945", en Balfour, S. y Preston, P.(eds.), *España y las grandes potencias en el*

- siglo XX*, Barcelona, Crítica.
- Lleixà, Joaquim(1986), *Cien años de militarismo en España*, Barcelona, Editorial Anagrama.
- Núñez, Xosé-Manoel(2004), "From National-Catholic Nostalgia to Constitutional Patriotism: Conservative Spanish nationalism since the Early 1990s", in Balfour, S.(ed.), *The Politics of Contemporary Spain*, London, Routledge, 121-145.
- McDermott, K. and Agnew, J.(1996), *The Comintern: A History of International Communism from Lenin to Stalin*, Londres, Macmillan, 1996.
- Moa, Pío(2004), *Los mitos de la Guerra Civil*, Madrid, La Esfera de los Libros.
- Moradiellos, Enrique(2001), *El rehñidero de Europa. Las dimensiones internacionales de la Guerra Civil española*, Barcelona, Península.
- Payne, Stanley G.(1967), *Politics and the Military in Modern Spain*, Stanford Univ. Press.
- _____(2004), *The Spanish Civil War, the Soviet Union, and Communism*, New Haven, Yale Univ. Press.
- Preston, Paul(1994), *Franco. Caudillo de España*, Barcelona, Grijalbo.
- _____(1996), "Mussolini's Spanish adventure: from limited risk to war", in Graham, H. and Preston, P.(eds.), *The Republic Besieged: Civil War in Spain, 1936-1939*, Edinburgh Univ. Press, 21-51.
- _____(2002), "Italia y España en la Guerra Civil y en la Guerra Mundial, 1936-1943", en Balfour, S. y Preston, P.(eds.), *España y las grandes potencias en el siglo XX*, Barcelona, Crítica.
- Queipo de Llano, G. G.(2000), "El impacto internacional de la Guerra Civil Española", en Tusell, J., Avilés, J. y Pardo, R.(eds.), *La política exterior de España en el siglo XX*, Madrid, Biblioteca Nueva, 221-244.
- Radosh, R., Habeck, M. R. y Sevostianov, G.(eds.)(2002), *España traicionada. Stalin y la Guerra Civil*, Barcelona, Planeta.
- Roberts, Geoffrey(1999), "Soviet Foreign Policy and the Spanish Civil War, 1936-1939", en Leitz, C. & Dunthorn, D. J., *Spain in an International Context, 1936-1959*, N.Y., Berghahn Books, 81-103.
- Saz, Ismael(1986), *Mussoloni contra la II República. Hostilidad, conspiración, intervención (1931-1936)*, Valencia, Edicions Alfons El Magnànim.
- Seco Serrano, Carlos(1984), *Militarismo y civilismo en la España contemporánea*, Madrid, Instituto de Estudios Económicos.

- Smyth, Denis(1984), "Reflex reaction: Germany and the onset of the Spanish Civil War", in Preston, Paul(ed.), *Revolution and War in Spain, 1931-1939*, London, Methuen, 243-265.
- Thomas, Hugh(1976), *La Guerra Civil española*, Barcelona, Mondadori.
- Viña, Ángel(1979), *El oro de Moscú. Alfa y omega de un mito franquista*, Barcelona, Grijalbo.
- _____ (1996), "Intervención y no intervención extranjera", in Malefakis, E.(dir.), *La guerra de España (1936-1939)*, Madrid, Taurus, 263-288.
- _____ (2001), *Franco, Hitler y el estallido de la Guerra Civil*, Madrid, Alianza Editorial.
- _____ (2001), "The Financing of the Spanish Civil War", in Preston, Paul(ed.), *Revolution and War in Spain, 1931-1939*, London, Methuen, 266-283.
- Viña, Ángel and Seidel, C. C.(2002), "Franco's request to the Third Reich for military assistance",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11, 191-210.
- Weinberg, Gerhard(1970), *The Foreign Policy of Hitler's Germany: Diplomatic Revolution in Europe, 1933-1936*, Chicago Univ. Press.
- Whealey, Robert H.(1989), *Hitler and Spain: The Nazi Role in the Spanish Civil War 1936-1939*,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최해성

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196-67

E-mail: marchoe@snu.ac.kr

논문접수일: 2006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06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06년 12월 11일